



롤링힐스 식음료 팀장 이동규

이번호 초대석 코너에는 경기 화성에 자리한 롤링힐스호텔의 식음료 팀장으로 있는 이동규 팀장을 초청했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양민우

필자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2002년 1월, 부산 해운대서였다. 당시 그는 부산 메리어트 호텔의 선임 스태프로 있을 때였다. 2000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와인에 대한 붐이 세차게 일고 있었다. 이런 열풍 시류 속에서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는 선진 와인 강좌를 개설해 널리 와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지로부터 현지 와인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케 할 때 대부분의 오텔리에(hôtelier)를 비롯해 일반 스태프들은 너나할 것 없이 와인의 기초 이론을 듣고자 했다.

마침 부산 해운대에 자리한 비치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서울의 와인 아카데미가 직접 내려와 정규 과정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흔쾌히 이 제의를 받아들여 2002년 1월부터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 제6기 정규 과정을 현지에서 개설한 바 있었다. 파라다이스 호텔을 비롯해 조선 비치 호텔, 부산 롯데 호텔, 메리어트 호텔 등의 스태프들이 참여, 모두 18명 수강생의 수료를 가졌다. 이때 이동규 팀장이 수강생의 한 멤버로 참여했다. 이후 그는 몇몇 호텔을 전직하면서 나름대로 훌륭한 와인 전문가로서 자질을 닦았다. 2005년 제1회 KWC를 치르고 난 후 지방 호텔의 스태프한테도 KWC 심사위원 참여의 기회를 부여코자 했을 때 2008년 맨 먼저 이동규 팀장이 이에 낙점되었다.

특별히 이동규 팀장을 이 코너에 초대하게 된 이유는 그가 KWC 수상 와인을 홍보하는데 남다른 이바지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KWC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소믈리에 또는 와인 전문가들 중에서도 특히 그는 KWC를 알리는데 적극적이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업장마다 이미 검증된 KWC의 와인을 고객한테 널리 권유하면서 영업을 활성화했던 것이다. 그간 그는 제주의 해비치 호텔을 비롯해 창원 의 풀만 호텔, 부산의 노보텔 엠베서더호텔 그리고 경기 화성의 롤링힐스 호텔에 이르기까지 KWC 수상 와인을 애써 홍보하는데 늘 앞장서 왔다. 어느 면에서는 호텔 현장에서 Korea Wine Challenge의 신뢰도를 끌어올린 데 이바지한 셈이다.

이 팀장은 비교적 과묵한 인품을 지니고서 언제나 미소를 띠면서 진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다. 그가 거쳐 온 술한 호텔에서 동료 스태프들한테 와인 특장을 펼치기도 했다. 달리 자신도 부단한 학구열로 스스로를 다듬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6년 Ph.D 학위를 취득했다. 폭넓은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한테서 참된 오텔리에의 평균 이상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더 한층의 성취를 기대해본다. ㄴ

LA PURÍSIMA

BODEGAS

깨끗하고 변함없는 품질과 신뢰를 담아낸 와인

LA PURISIMA=THE PUREST
QUALITY AND AUTHENTICITY



La Purísima Old Vines Expression 2016
라 푸리시마 올드 바인 익스프레션 2016

Mundus Vini 2019 Gold Medal
Decanter Asia Wine Awards 2019 Silver Medal
Korea Wine Challenge 2020 Gold Medal

La Purísima Syrah 2018
라 푸리시마 시라 2018

Texsom International Wine Awards 2020 Silver Medal
Korea Wine Challenge 2020 Silver Medal
Korea Wine Challenge 2018 Silver Medal

La Purísima Trapío 2017
라 푸리시마 트라피오 2017

Spring Tasting Mundus Vini 2020 Gold Medal
Korea Wine Challenge 2020 Silver Medal
Korea Wine Challenge 2019 Silver Medal